

2025. 10. 29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2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

도시철도설비부장

배광희

02-6438-2708

사진 없음 ☐ 사진 있음 ☒

쪽수 : 8쪽

신호과장

오수년

02-6438-2770

서울시, 2026년 6월 개통 목표로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

- 시,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·운행체계 점검...철도종합시험운행 후 내년 6월 개통 예정
- 최대 52대 수용, 유치선 36선, 종합관리동 등 설치, 철도시설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
- 정비 효율을 높이고 운행 안정성 강화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

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(토)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.

-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,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.

☐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,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.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, 종합관리동,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·송변전·신호설비 등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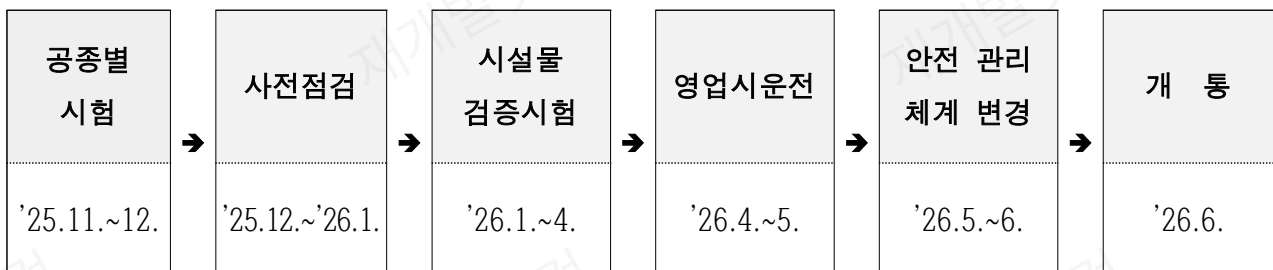
- 차량기지는 지하철 차량의 정비, 점검, 세척, 주차(대기)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시설로, 열차의 안전운행을 책임지는 곳이다.

□ 이번 시험운행은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안전공단,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.

□ 첫 단계인 ‘공종별시험’에서는 궤도·전력·신호·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. 이후 ‘영업시운전’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, 운전·관제·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.

□ ‘영업시운전’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‘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’ 절차를 거치게 된다.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,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실시한다.

○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철도시설물의 본격적인 영업 운행이 시작된다.



〈철도종합시험운행 절차도(철도안전법)〉

- 진접차량기지가 운영되면 차량은 2022년 3월 개통된 진접선(4호선 연장, 별내별가람~진접, 14.9 km , 3개 역)의 진접역 또는 오남역을 통해 차량기지로 출입하게 된다.
- 한편 시는 차량기지를 통해 수도권 북부 지역의 철도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, 안정적인 차량 정비·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-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“차량기지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철도 핵심 시설”이라며, “개통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철저히 수행해 내년 6월 안전한 개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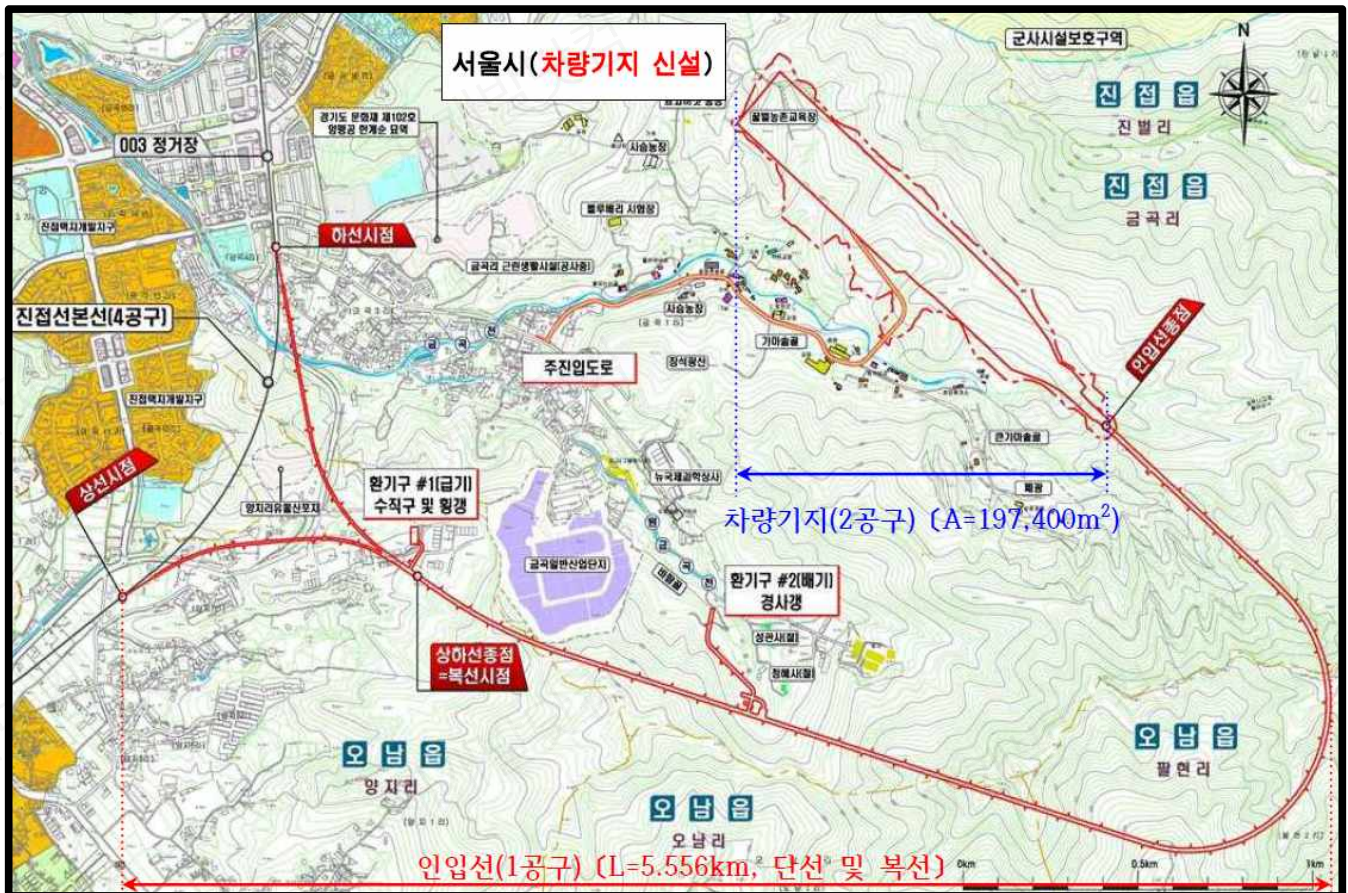
참고1

진접선(4호선연장) 차량기지 건설사업 개요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/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
- 규 모 : 차량기지 197,400㎡, 입·출고선 4.9km
- 기 간 : '18. 12. ~ '27. 6.
- 총사업비 : 7,078억원(서울시 6,776억원)

□ 전체노선





<차량기지 전경>



<차량기지 전경>



<검수고>



<종합관리동>



<유치선>



<유치선>

□ 철도종합시험운행 세부절차(행정처리기간 포함)

